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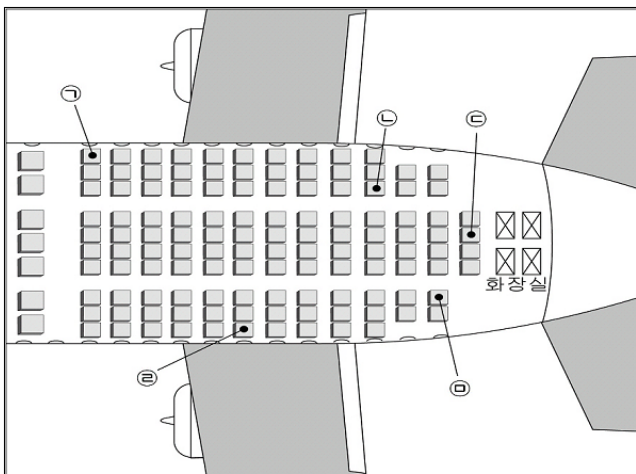
수험번호

2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써 넣으시오.
-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남자가 여자에게 제시할 자리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2. (물음) 이 장면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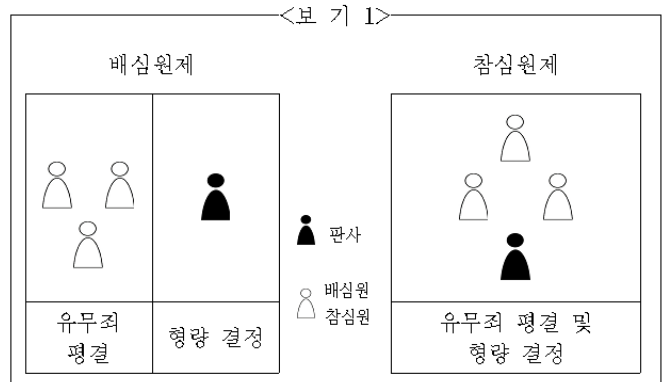
- ① 인간이 자연에 도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군.
- ② 좋은 일 다음에는 나쁜 일이 생기게 마련이군.
- ③ 자연 현상이 지닌 모순적 속성을 이해해야겠군.
- ④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군.
- ⑤ 인간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어렵군.

3. (물음) 이 대화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 ① 과당은 설탕에 비해 당도가 높다.
- ② 과일 속의 과당 함량은 늘 일정하다.
- ③ 과당과 포도당의 단맛 값은 일정하지 않다.
- ④ 온도가 내려가면 과당의 베타형이 알파형으로 바뀐다.
- ⑤ 과일을 너무 차갑게 하면 오히려 단맛을 느끼지 못한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대담을 들은 청취자가 <보기 1>의 자료를 접했을 때, <보기 2>의 빈 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은?



- <보 기 2>
- 국민참여재판은 유무죄 평결을 배심원들이 한다는 점에서 _____와 공통점이 있다.
 - 국민참여재판은 형량을 배심원과 판사가 함께 결정한다는 점에서 _____와 공통점이 있다.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결정은 구속력을 _____.

- ① 배심원제 - 참심원제 - 맞는다
- ② 배심원제 - 참심원제 - 맞지 않는다
- ③ 참심원제 - 배심원제 - 맞는다
- ④ 참심원제 - 배심원제 - 맞지 않는다
- ⑤ 참심원제 - 참심원제 - 맞는다

5. (물음)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담자의 말을 보충하여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 ② 적절한 비유를 통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고 대담자에게 이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사례를 들어 대담자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⑤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을 질문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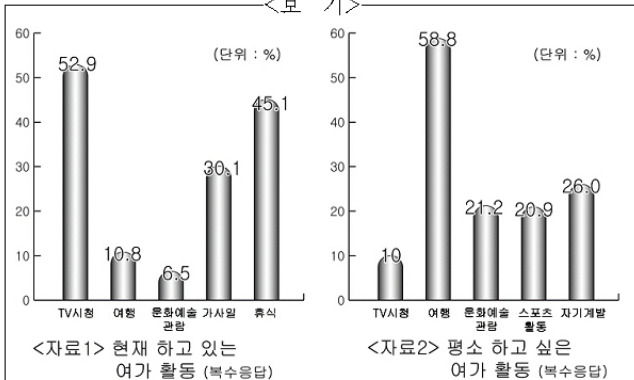
암벽 등반은 암벽 표면에 나 있는 틈새나 돌기 등을 손으로 잡고, 발로 디디며 한 발 한 발 목표 지점을 향해 오르는 것이다. 암벽을 오른다는 것은 욕망의 실현이자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도전이다.

암벽 등반은 대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한 사람이 오를 때 다른 사람은 로프와 확보물로 동반자의 추락 거리를 최소화하게 된다. 또한 바위의 모양새에 따라 등반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에, 동반자는 눈앞에 나타나는 바위가 비탈인지, 민탈인지, 아귀벽인지 바위의 모양새를 관찰해야 한다.

- ① 인생은 돌층계와 같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한 계단씩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한다.
- ② 긴 인생길에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 ③ 인생은 다양한 변화의 연속이다. 새롭게 바뀌는 삶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우리는 동시에 두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 ⑤ 사람들은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강한 도전 정신을 지녀야 한다.

7. ‘여가 활용의 실태 및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하여 <보기>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① <자료1> : 여가 활용이 주로 비활동적인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 ② <자료1>, <자료2> : 상당수의 사람들이 현재 여가 활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 ③ <자료1>, <자료3> : 여가 활용의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는 개인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④ <자료2>, <자료3> : 여가 활용을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다.
- ⑤ <자료1>, <자료2>, <자료3> : 경제적 부담이 평소 하고 싶은 여가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8. ‘학교 도서관 내실화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자료 활용 및 개요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제문 : 학생들의 바람직한 도서관 이용 문화 정착을 통하여 학교 도서관을 내실화한다.

I.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

II. 학교 도서관 이용 문제점

1. 도서관 이용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2. 특정 분야에 편중된 독서 습관
3. (㉡)

III. 학교 도서관 내실화 방안

1. 다독상 시상, 독후감 대회 개최㉢
2. 작가와의 만남 행사 개최㉣
3.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 지도㉤
4. 도서관 이용 예절 지도
5.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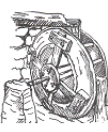
IV. 학교 도서관 내실화를 위한 노력

- ① ㉠에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현황’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② ㉡에 ‘도서관 이용 예절 부재’ 항목을 추가한다.
- ③ ㉢과 ㉣을 한 항목으로 묶어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로 한다.
- ④ ㉤은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만화나 인터넷 소설 대출 금지’로 바꾼다.
- ⑤ ㉥은 논지 전개상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9. 제시된 전통 생활 도구를 이용하여 글쓰기를 한 것 중,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3점]

<보 기>

- 조건 : ○대상을 화자로 설정하여 표현할 것
○대조의 방법을 사용할 것
○교훈적 내용을 담을 것

①		저는 과거 조상들이 무거운 물체를 옮길 때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트럭이나 경운기에 밀려 제 기능을 잃고 민속 박물관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②		저는 낮이나 밤이나 어김없이 시간을 알려주던 자동 시보 장치입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종을 울려 사람들에게 부지런함의 가치에 대해 알려 주었지요.
③		저는 예전에 싸전이나 한약방에서 눈금 새겨진 지렛대 위의 추를 이리저리 움직여 무게를 재던 도구입니다. 사물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는답니다.
④		옛날에 우리는 부부의 인연을 맺어 쌀, 보리, 콩 따위의 갖가지 곡식을 갈았습니다. 서로의 몸을 맞대어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은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⑤		제가 흙통의 물을 비우지 않으면 물레가 돌아가지 않듯이 비움은 또 다른 채움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도 욕망의 채움만을 알고 비움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면 오히려 많은 것들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10. <보기>는 학교 축제 초대장의 초고이다.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밤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며 하늘을 본 적이 ㉠계신가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늘을 잘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았을 때의 새로운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시원한 밤 공기와 더불어 ㉡느껴졌던 그 신선한 설렘을.

○○고등학교 제13대 학생회장이 되고 축제를 준비하며 저는 밤하늘을 보던 그 새로운 설렘과 뿌듯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제일 높은 정상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에 지쳐 있었던 무거운 마음, 시험을 앞두고 긴장하던 마음, 성적표를 받고 걱정하던 마음, 오늘 ㉣하루만큼은 모두 잊고, ○○인만의 열기를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보석처럼 빛나는, 값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제13회 ○○제로 초대합니다.

- ① ㉠은 높임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있으신가요?’로 고쳐 쓴다.
② ㉡은 부적절한 피동 표현이므로 ‘느꼈던’으로 고친다.
③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④ ㉣은 띄어쓰기 규정에 어긋나므로 ‘하루 만큼은’으로 고친다.
⑤ ㉤은 잘못된 표현이므로 ‘시간을 보내시기’로 고쳐 쓴다.

11. <보기>를 통해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그는 소리 없이 떠났다.
○ 그는 무척 열심히 일한다.
○ 확실히 엄마의 약손은 효과가 있었다.

- ① 부사어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
② 부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
③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생략할 수 있다.
④ 부사어는 다른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다.
⑤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다.

12. 다음은 사람과 관련된 접미사에 대한 설명이다. 예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접미사	결합 조건 및 의미	예시
① -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함	일꾼 구경꾼
② -보	일부 동사 뒤에 붙어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함	먹보 울보
③ -장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함	철장이 옹기장이
④ -동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함	귀염동이 막대동이
⑤ -내기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함	풋내기 신출내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략 줄거리] 방울재가 댐 건설로 수몰되고 칠복은 광주의 산동네로 떠나게 된다. 하지만 칠복은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딸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와 댐 주위에서 낚시꾼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칠복은 낚시터에서 정을 두들기다 낚시꾼들에게 구타당한다.

“안 가겠다면 덕석몰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꺼여!”

㉠강촌영감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 내며 결연히 말했다.

“봉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말어. 고향에서 내쫓기면 워디로 갈 것인감. 이보게덜 내 사정 좀 봐줘!”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덤석 껴안으며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그들 방울재 친구들은 도시 말이 없었다.

칠복이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이를 웅등 물고 참아 냈다. 강촌영감의 말마따나 고향이 없어져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들을 남아 있을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재와 방울재의 옛 사람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재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에 정신을 가눌할 수 없게 된 거였다.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정월 대보름날 밤 ‘메기굿’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경중경중 춤을 추고 싶어져 정을 찾아 들고 나서는 거였다.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울재와 낮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 닿게 높아지는 듯싶었다.

“자네 정신 말짱허니께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허여.”

㉡강촌영감이 불췌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허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겨.”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춰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평 서둘러 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가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가 쉼쉼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쿵쿵 쑺쑺대는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충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섬찟 했다.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터백이 버

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 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쑺서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두독후두독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아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소리에 펄떡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내고 뼈거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팍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쑺쑺여 보았다. 어둠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쭈뼉 웃으면서 불췌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툇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껍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 소리와도 같은 그 징소리는 바로 뒤편의 아카시아 숲계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아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소리지, 징소리지.”

봉구는 벌떡 일어나 더듬더듬 담배를 찾아 성냥불을 붙였다. 그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몇 번인가 누웠다 앉았다 하며 담배만 피웠다. 자꾸만 컷바퀴를 후벼파고 들려오는 징소리가 오목가슴 깊숙이에 가시처럼 걸린 때문이었다.

이날 밤, 팔만이도, 덕칠이도, 강촌영감도 다 같이 방울재 안통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징소리 때문에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징소리는 점점 더 가깝게, 그리고 때로는 상여 소리처럼 슬프게 들렸는데, 그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방울재 사람들은, 그게 어쩌면 그들한테 쫓겨난 칠복이의 우는 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다 같이 했다. 그 생각과 함께 징소리가 더욱 무서워졌으며 아침을 맞기조차 두려웠다.

- 문순태, 「징소리」 -

* 메기굿 : 지신밟기

* 툇상스러운 : 투박하고 상스러운

13.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자연적 배경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③ 전지적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진술하고 있다.
- ④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사건을 요약하여 전달함으로써 이야기 진행의 속도감을 높이고 있다.

14. 위 글의 중심 사건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징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ㄱ~ㄴ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칠북이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 댐 주위 낚시터에서 징을 친다.
 ㄴ. 칠북의 징소리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장사에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ㄷ. 마을 사람들은 칠북을 마을에서 쫓아내지만, 징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 ① ㄱ의 '징소리'는 낚시터로 변해버린 고향에 대한 칠북의 울분이 담긴 소리가 아닐까?
 ② ㄱ의 '징소리'는 생계유지에 급급한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고향의 의미를 일깨우려는 소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③ ㄴ의 '징소리'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이 칠북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④ ㄷ의 '징소리'는 마을 사람들이 또 다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 같다.
 ⑤ ㄷ의 '징소리'는 칠북을 쫓아낸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에서 나오는 양심의 소리일 거야.

15. ㉠~㉣ 중, <보기>의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보 기>

소설 속 인물의 행동은 심리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물의 심리가 단순하지 않고 복잡할 경우, 그 행동도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6. <보기>는 무슨 말 을 추리해 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자네덜은 낚시꾼들 상대로 목구멍 타작이나마 하는 거야 배가 아프나면서 ①역석물이를 해서라도 날 쫓아내겠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근데, 자네덜은 내 맘을 몰라. 지난 번 ②호수의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헤어진 방울재 사람들 얼굴이 죄다 보이더라니께. 그리고 ③정월이면 징징 울어라, 액년 쫓게 울어라 하면서 신나게 징을 치던 때가 생각나더랑께. 물속에 갇혀버린 마을도 찾고 싶고 ④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도 보고잡아 미칠 것 같더구먼. 나가 징을 친 건 자네덜 목숨 끊어놓자고 한 짓은 아니란 말일세. 가라면 가야제. ⑤갈 곳은 있음께 낱량은 걱정 말어.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에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현재보다 짧았다. 산업혁명 시기만 하더라도 전염병에 걸려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항생제와 백신이 등장하면서 수명이 급격히 늘었던 것이다. 항생제가 박테리아를, 예방 백신이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을 주로 처리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예방 백신은 어떻게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걸까?

우리 인체는 폐쇄적인 사회에 가깝다. 이것을 유지하는 방어 체계가 면역계이다. 면역계는 제 식구는 감싸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은 공격하여 무력화시킨다. 왜냐하면 이런 이방인을 방치하면 우리 몸의 정교한 시스템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즉, 면역계의 핵심은 '나'와 '남'을 구별하여 '남'을 만나면 없애거나 '남'의 이상착의를 기억해 두었다가 훗날 다시 만나면 없앨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만난 자가 너무 강하면 방어할 시간이 없어 한방의 공격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약한 이방인을 만들어 몸의 방어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예방 백신**이다.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면 몸속 구성원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몸속 구성원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계는 이를 바이러스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숙주무책이 된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β'라는 단백질이 뇌혈관에 쌓여 생기는 병인데, 면역계가 몸속 구성원인 '아밀로이드-β'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인식하지 못해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방 백신의 원리를 응용해서 몸속 구성원의 문제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수는 없을까?

몸속 고유단백질과 유사하게 바이러스로 디자인해 백신으로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면역계는 몸속 고유단백질에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임을 알려주는 보조 물질이 필요하다. 이 면역보조물질을 고유단백질에 포함시켜 만든 백신 주사를 맞으면 면역계는 항체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항체는 '말썽'을 일으키는 몸속 고유단백질을 찾아가 힘을 빼놓거나 제거할 것이다. 이것이 ㉡**치료 백신**이다.

아직은 임상시험 단계지만 치료 백신으로 암을 치료할 날도 멀지 않았다. 암세포는 증식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정상 세포 중에도 증식 속도가 빠른 것이 있는데 기존의 항암제는 이를 모두 암세포로 오인하여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항암치료를 받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색이 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치료 백신은 몸이 항체를 만들어 면역계를 견고히 다지도록 유도한 다음, 항체로 하여금 암세포를 공격하게 한다. 특정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도 당연히 적다. 기존의 항암제가 말썽을 일으키는 고유단백질을 직접 공격했다면 치료 백신은 간접 공격을 하는 셈이다. 치료 백신의 등장으로 선천적인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질병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백신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암세포는 증식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 ② 항생제 덕분에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길어졌다.
- ③ 우리가 맞는 독감 예방 주사는 예방 백신에 해당한다.
- ④ 인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항원으로 인식한다.
- ⑤ 인체의 면역계는 몸속 고유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인식한다.

1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은 모두 우리 몸속 구성원이다.
- ② ㉠, ㉡은 모두 항원에 면역보조물질을 포함한다.
- ③ ㉠에는 위험 신호가 필요하지만, ㉡에는 필요 없다.
- ④ ㉠은 외부에서 전염된 병을, ㉡은 몸속 구성원에 의한 병을 담당한다.
- ⑤ ㉠은 이미 걸린 병을, ㉡은 앞으로 걸릴 병에 대한 몸속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보기>에서 비만 치료 백신으로만 들어질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은? [1점]

—<보 기>—

비만은 체내에 지방이 쌓여 생기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지방은 소장에서 흡수되어 림프관과 ㉠가슴관을 거친 후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간다. 심장에서는 흡수된 지방이 혈관을 타고 각 조직으로 이동한다. 이때, 운반체는 ㉡저밀도지단백, ㉢초저밀도지단백, ㉣카일로마이크론인데, 각 조직에 지방을 운반한다. 이 과정에서 ㉤아포리포프로테인이라는 단백질이 운반체가 나른 지방을 조직에 축적하는 데 관여하는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香丹)아 그넛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배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꼬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珊瑚)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채색(彩色)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 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 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鞦韆詞)」 -

(나)

내 마지막으로 들 집이 비웃나무 우거진 기슭이 아니면 또 어디겠는가
연지새 짝지어 하늘 날다가 깃털 하나 떨어뜨린 곳
어웁새 속새 덮인 흙산 아니고 또 어디겠는가

마음은 늘 욕심 많은 몸을 꾸짖어도
몸은 제 길들여온 욕심 한 가닥도 놓지 않고 붙든다
도시 사람들 두릅나무 베어내고 그곳에 채색된 단청(丹青) 올려서
다람쥐 들쥐들 제 짧은 잠, 추운 꿈 꿀 혈거(穴居)마저 줄어든다

먼 곳으로 갈수록 햇빛도 더 멀리 따라와
내 여린 어깨를 토닥이는 걸 보면
내 어제 분필과 칠판 앞에서만 열렬했던 말들이
가시 되어 일어선다

산골 처녀야, 눈 시린 십자수(十字繡) 그만두고
여치 메뚜기 날개 접은 들판 콩밭 누렁잎 보아라
길 끝에 무지가 차라리 편안인 산들이 누워 있고
산 끝에 예지도 거추장스러워 피라미들에게 맡겨버린
물이 마음 풀고 흐르고 있다

내 이 길 역세 속으로 걸어가면
배춧잎 같은 정맥 돋은 손을 쉬고
늘 내일로만 가는 신발을 벗어 한 사흘 나뭇가지에 걸어

[A] 들 수 있을까

내 늑골 밑에서 보채던 달력과 일과표와
눈 닿으면 풍금 소리를 내며 일어서던 글자들도
둥 두드려 한 열흘 잠 재울 수 있을까

먼저 간 발자욱들이 내 발길에 지워지고
내 발자국 또한 뒤 이은 발길에 이내 지워지고 말
한쪽 끝에는 대구(大邱)를 달고 다른 쪽에는 은해사(銀海寺) 술
바람 소리를 달고 있는 길

- 이기철, 「길의 노래」 -

(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멸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려라 우려라 새여 자고 니려 우려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려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렁공 더렁공 호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프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딴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피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

20. (가)~(다)를 함께 묶어 교지에 싣는다고 할 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과 이상 사이의 욕망과 슬픔
- ② 외로움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 ③ 아름답고 순수한 자연 세계를 동경하며
- ④ 따스한 온정을 나눌 수 있는 세계를 꿈꾸며
- ⑤ 현실의 '나'를 극복하고 진정한 '나'를 찾아서

21. (가)와 (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체를 활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반어적인 표현으로 삶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색채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리고 있다.
- ⑤ 유사한 어구의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2. <보기>는 (나)에 대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과 ㉡에 대응하는 시어를 (가)에서 찾으려면?

<보 기>

이 시에서 화자는 현실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을 느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현실 공간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대구'와 '은해사' 사이의 길 위에 서 있는 화자의 모습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현실 공간인 ㉠'대구'에 한 발 딛고 있으면서, 늘 마음속으로는 ㉡'은해사'를 꿈꾸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노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

㉡

- | | |
|----------|------|
| ① 그냘줄 | 파도 |
| ② 바다 | 배 |
| ③ 수양버들나무 | 바람 |
| ④ 풀꽃더미 | 하늘 |
| ⑤ 달 | 서(西) |

23. [A] 뒤에 <보기>의 조건에 맞게 시행을 덧붙인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조건 : ○ 시의 흐름과 주제를 고려할 것
 ○ [A]의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한 어조로 표현할 것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① 갑옷처럼 내 몸을 가두고 있는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싶구나
- ② 가쁜 숨소리를 내며 나를 떠밀던 시냇바늘을 멈추게 할 수는 없을까
- ③ 삶에 지쳐 뒤로 밀려가는 내 발걸음을 앞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 ④ 좁은 길을 정처없이 헤매는 초라한 나는 언제쯤이나 큰길을 만날 수 있을까
- ⑤ 잔소리 늘어놓던 낯은 지식들로부터 한 석달 떠나 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구나

24. 다음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고전 문학의 이해' 게시판입니다. ^^*

수업 시간에 배운 '청산별곡'에 대한 짧은 감상문을 올려주세요~

학생

나도 한마디

① L

'살어리랏다'를 '살고 싶구나'로 해석한다면, 화자는 청산에 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을 동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L

화자가 현재 청산에 살고 있고, '살어리랏다'를 '살아야만 하는구나'로 본다면, 괴롭지만 청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한탄을 표현한 것입니다.

③ L

2연에 등장하는 '새'는 화자의 분신이 아닐까요? '우러라'를 '우는구나'로 본다면, 화자가 울고 있는 새를 보며 자신도 새처럼 울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④ L

'우러라'를 '노래하다'의 의미로 보아 '너를 원망하는 나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로 읽었을 때, 고통을 낙천적으로 해소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⑤ L

3연의 '가던 새'는 '갈던 사래(발)'의 뜻이 아닐까요? '녹슨 연장을 가지고 갈던 발을 본다'로 풀이하여 옛 생활에 대한 미련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고통의 근원에 대한 탐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근원을 철학적으로 탐구한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인식 방식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인간의 의지는 끊임없이 밖으로 뻗어 나가고, 그 뻗어 나감이 방해받으면 고통을 느낀다고 본 것이다. 인간의 의지는 만족감을 모른다. 일차적으로 세운 목표에 도달하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낄지 몰라도 또 다른 새로운 의지가 생기게 되므로 결국 여전히 고통을 받게 된다. 의지는 절대 만족할 줄 모르고 주변의 모든 것을 먹어 치우는 괴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의지가 있는 한 계속해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이 학생은 더 큰 발전을 이루려는 목표를 위해 계속 자신을 다그칠 것이다. 이것은 고통이다. 목표가 높을수록 고통도 커진다. 잠정적 목표에 도달하면 순간적으로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의지가 새로 생기고 이 의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한다. 결국 끊임없이 뻗어 나가려는 의지 때문에 인간은 항상 고통에 시달린다.

인간은 끊임없는 소망에 시달리는 의지의 지배를 받으므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러다 보면 맹목적으로 뻗어나가는 ‘나’의 의지로 인해 ‘남’의 의지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의지를 긍정하기 마련이어서 ‘나’의 의지에 대한 긍정이 곧 ‘남’의 의지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때 의지와 의지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고, 한 의지는 순간적인 만족을 얻으지 몰라도 다른 의지는 고통을 겪는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이러한 ㉠의지와 의지 사이의 엇갈림이 고통의 원천이 됨을 알 수 있다. ‘남’의 의지에서 나온 행위 때문에 느끼는 자신의 고통에 비추어, ‘나’의 의지에서 나온 행위 때문에 ‘남’ 또한 고통 받을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와 나는 모두 의지로 묶여 있는, 맹목적 의지의 대항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이를 깨달은 인간은 ‘남’의 의지를 부정하지 않는 수준까지만 ‘나’의 의지를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결국 인간이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맹목적 의지가 고통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그것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지를 따라다니면 절대 만족할 수 없고 따라서 고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지의 부정은 한번 도달했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내적 투쟁을 통해 새롭게 획득되어야 한다. ‘의지의 새로운 긍정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을 견뎌내야만 마음의 평정을 누릴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의지의 자유’라고 표현했다.

25.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다.
- ② 인간은 타인의 의지를 존중한다.
- ③ 인간은 반성할 줄 아는 존재이다.
- ④ 인간은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다.
- ⑤ 인간은 목표가 높을수록 고통도 크게 느낀다.

26. <보기>는 고전 소설 ‘구운몽’의 줄거리이다. ㉡~㉣를 위 글의 내용과 연결하여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육관대사가 남악 형산에 법당을 열고 제자를 키우는데 이 중 성진이 가장 총명하였다. 용궁에 갔다가 술을 먹은 ㉡성진은 오는 길에 팔 선녀와 수작하고 불도에 회의를 품게 되어 팔 선녀와 함께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성진은 양 처사의 외아들 양소유로 태어나서 출장입상(出將入相)하기까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한 끝에 승상이 된다. 그리하여 태평성대에 팔 선녀와 더불어 모든 복을 누리지만 이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불도에 귀의하고자 한다. 그 순간 육관대사가 나타나 성진을 잠에서 깨우니 ㉤성진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깨우치려고 한 것임을 알고 ㉥불도에 정진하여 큰 도를 얻게 되었다.

- ① ㉡ : 끊임없이 뻗어나가려는 의지에 지배당하고 있다.
- ② ㉢ : ‘입신양명(立身揚名)’하려는 양소유의 의지가 방해를 받았다.
- ③ ㉣ : 더 이상 외부의 영향에 방해받지 않아 타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충실하게 된다.
- ④ ㉤ : 의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으로는 영원한 만족를 누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 ⑤ ㉥ :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의지를 부정하고 있다.

27. 위 글에서 말하는 ‘고통을 피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깨닫는다.
- ②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자신의 의지를 다진다.
- ③ 의지가 새로운 의지를 일으키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절한다.
- ④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다.
- ⑤ 인간은 숭고하고 높은 의지를 지님으로써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난다.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양 선박 사고로 유출되는 기름은 한꺼번에 바다에 쏟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오염원이 된다. 유출된 기름은 증발, 용해, 분산, 에멀션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확산되는 기름은 해류, 조석, 바람에 의해 이동한다. 그 중 용해 성분은 해수로 녹아들고 휘발성분은 대기 중으로 증발해 대기 오염원이 된다. 그리고 휘발성분이 날아간 기름은 갈색의 끈적끈적한 에멀션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오일볼(oil ball)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런 오일볼은 해저에 가라앉아 있다가 기온이 상승하면 떠오르면서 터지고, 이는 유막을 만들어 2차 환경 오염원이 된다.

유출된 기름의 유독 성분은 해양과 해안의 동·식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런 피해는 유출 사고 초기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있고, 사고 후 수개월 또는 수십 년에 걸쳐 장기적으

로 발생하는 것도 있다. 특히 개펄에서는 기름이 퇴적물 속으로 스며들어 장기간 잔류하기 때문에 이곳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들은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오염이 될 수 있다.

해상에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한 후 유출된 기름을 회수하게 된다. 회수 방법에는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 물리적 방법에는 유회수기와 흡착포 사용 방법이 있다. 유회수기 사용은 선박을 이용해 오염지역에 직접 나가서 오염된 바닷물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해 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유출된 기름의 정도가 높거나 덩어리가 된 상태, 주변에 부유물이 많은 경우 등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해안에서는 수면이 낮아 배를 띄울 수 없어서 유회수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흡착포**로 기름을 걷어낸다. ㉠흡착포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점유로** 만든 압축솜이다. 폴리프로필렌은 기름과 친하고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름만 빨아들인다. 노동력은 많이 들지만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우며, 대규모 오염사고에서는 엄청난 양의 흡착포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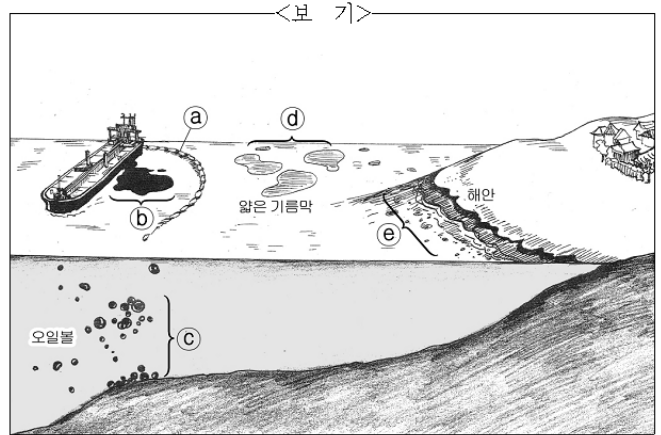
화학적 방법으로는 유처리제나 유겔화제를 오염지역에 뿌리는 방법이 있다. 유처리제 사용 방법은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기름을 분산시킨 후 자연 정화작용에 의해 기름이 저절로 없어지게 돕는 방법이다. 이것은 기름이 유출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유막이 얇게 확산되었거나, 처음부터 유출량이 적어서 유막이 얇게 형성된 경우에는 물리적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나 유처리제는 기름의 분산 속도를 높일 뿐 완전히 없어지는 못한다. 한편, 유겔화제는 바다에 넓게 퍼져 있는 기름을 서로 달라붙게 해서 물리적 방법을 사용한 기름 제거 작업을 보다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유처리제나 유겔화제 사용 방법은 화학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 기름 유출 사고는 100% 예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제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어야 한다.

28. 다음은 위 글을 쓰기 위해 구상한 내용이다. 실제 글쓰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입부는 어떻게 시작할까?	해양 선박 기름 유출 사고가 위험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관심을 집중시킴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면 좋을까?	방제 작업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함② 방제 작업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함③ 방제 작업의 효과를 사례를 들어 설명함④
글을 어떻게 마무리할까?	방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함⑤

29. <보기>는 기름 유출 사고를 가상한 그림이다. 위 글에 따르면,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사고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일펜스를 설치한다.
- ② ㉡ : 기름이 굳어지거나 유막이 얇아지기 전에 기름을 회수하기 위해 유회수기를 가동한다.
- ③ ㉢ : 굳어버린 기름과 물을 분리하기 위해 유겔화제를 사용한다.
- ④ ㉤ : 막이 얇아진 기름을 분산시켜 자연 정화를 돕기 위해 유처리제를 사용한다.
- ⑤ ㉥ : 수심이 얇은 해안에서는 유회수기의 작업이 곤란하므로 흡착포를 사용한다.

30. ㉠의 원리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1점]

- ① 젖은 옷을 세탁기에 넣어 물을 빼낸다.
- ② 설탕을 뜨거운 물에 녹이면 찬물보다 빨리 녹는다.
- ③ 크기가 다른 돌들을 체를 이용해 크기대로 나눈다.
- ④ 수확한 사과를 분류기에 넣으면 크기별로 상자에 담긴다.
- ⑤ 클립, 유리, 나무 조각 등이 섞여 있으면 자석을 이용해 클립을 빼낸다.

31. 속 조사 '로'의 의미를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보 기>	
로	ㄱ. 어떤 일의 수단·도구를 나타내는 격조사 ㄴ.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격조사 ㄷ.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격조사 ㄹ.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격조사

- ① ㄱ-ㄴ-ㄷ
- ② ㄱ-ㄷ-ㄴ
- ③ ㄷ-ㄱ-ㄴ
- ④ ㄷ-ㄱ-ㄹ
- ⑤ ㄷ-ㄴ-ㄱ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 영감은 남양 사람이다. 무신년 민란(民亂)에 관군(官軍)을 따라 토벌에 끼여서, 그 공으로 첨사(僉使) 벼슬을 얻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끝내 벼슬하지 않았다.

민 영감은 어릴 때부터 매우 영리하고 총명하며, 말을 잘하였다. 특히 옛 사람의 기이한 절개나 거룩한 발자취를 흠모하여 이따금 의기에 북받쳐서 흥분하기도 하였다. 그들의 전기를 읽을 때마다 한숨 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는 일곱 살이 되자,

“항탁(項橐)은 이 나이에 남 스승이 되었다.”라고 벽에다 크게 썼다. 열두 살 때에는

“감라(甘羅)는 이 나이에 장군이 되었다.”라고 썼으며, 열세 살 때에는

“외황아(外黃兒)는 이 나이에 유세(遊說)하였다.”라고 썼다. 열여덟 살 때에는

“곽거병(郭去病)은 이 나이에 기련(祈連)에 싸우러 나갔다.”라고 썼으며, 스물네 살 때에는

“항적(項籍)은 이 나이에 오강(烏江)을 건넜다.”라고 썼다. 그러다가 마흔이 되었지만, 아무런 이름도 이루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또

“맹자는 이 나이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크게 썼다. 그 뒤에도 해가 바뀔 때마다 이런 글들을 쓰기에 지치지 않았다. 그의 집 벽은 모두 점정투성이가 되었다. 일흔 살이 되자 그의 아내가

“영감, 올해에는 까마귀를 그리지 않으시려오?”하고 놀렸다. 그러자 민 영감이 기뻐하면서

“그렇지. 당신은 빨리 먹이나 갈아주구려.”하고 말하더니 곧

“범중(范增)은 이 나이에 기이한 꾀를 좋아하였다.”라고 커다랗게 썼다. 그의 아내가 발각 화를 내며

“꾀가 아무리 기이하더라도, 장차 언제나 쓰시려오?”하고 따졌다. 민 영감이 웃으면서 말했다.

①“옛날 여상(呂尚)은 여든 살에 장수가 되었지만, 새매처럼 드날렸다우. 이제 나를 여상에게 비한다면, 오히려 어린 아우 뽕밖에 안 된다우.”

지난 계유, 갑술년 사이에 내 나이는 열일곱여덟이었다. 병으로 오랫동안 시달리면서 노래, 글씨, 그림, 칼, 거문고, 골동품 등의 여러 잡물들을 제법 좋아하였다. 게다가 지나는 손님들을 모아놓고 익살스럽게나 우스운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을 달래었지만, 깊숙이 스며든 우울증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민 영감은 기이한 사람이시요. 노래도 잘 부르지만, 말도 잘 한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신나고도 괴이하고, 능청스럽고도 결찍하지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치고 마음이 상쾌하게 열리지 않는 이가 없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몹시 기뻐서 그에게 ‘함께 놀러오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민 영감이 나를 찾아 왔는데, 나는 마침 벗들과 더불어 음악을 즐기고 있었다. 민 영감은 서로 인사도 나누기 전에 통소 부는 자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그의 뺨을 치며 크게 꾸짖었다.

“주인은 즐겁게 놀자는데, 너는 어째서 성난 꼴로 있느냐?”

나는 깜짝 놀라서 그에게 까닭을 물었다. 민 영감이 말하였다. “저 놈의 눈알이 잔뜩 튀어나오도록 사나운 기운을 품었거든요. 저게 꼴낸 게 아니고 무엇이겠소?”

내가 크게 웃었더니, 민 영감이 또 말하였다.

“꼭 통소 부는 놈만 성난 게 아니라오. 피리 부는 놈은 얼굴을 돌리고 우는 듯하고, 장구를 치는 놈은 이마를 찌푸린 채 시름겨운 듯 하다우.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마치 무서운 일이라도 난 듯, 아이와 종놈들까지도 웃지 못하고 말도 못하게 되었으니, 이런 음악으로 어찌 기뻐할 수 있겠소?”

나는 곧 그들을 돌려보내고 민 영감을 맞아들여 앉혔다.

(중략)

민 영감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지만, 그의 대답은 언제나 메아리처럼 빨랐다. 끝내 아무도 그를 골탕 먹이지 못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고, 기리기도 했으며, 곁에 앉은 사람을 놀리기도 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허리를 잡고 웃어도, 민 영감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해서* 지방에 황충(蝗蟲)*이 생겨서, 관청에서 백성들더러 잡으라고 감독한답니다.”

하고 말하자, 민 영감이 물었다.

“황충을 잡아서 무엇한다우?”

“이 벌레는 누에보다도 작으네, 알록달록한 빛에 털이 돋혔지요. 이놈이 날면 명(螟)*이 되고, 붙으면 모(螽)*가 되어서 우리 곡식을 해치는데 거의 전멸시키지요. 그래서 잡아다가 땅속에 묻는답니다.”

[A] 민 영감이 말했다.

“이 따위 조그만 벌레를 가지고 걱정할 게 무어람. 내 보기엔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이 모두 [황충]일 뿐입니다. 키는 모두 일곱 자가 넘고, 머리는 검은 테다 눈은 빛나지요. 입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큰 테다 무슨 소린지 지껄여 대고, 구부정한 허리에 발굽이 서로 닿고 궁둥이가 있달아 있습니다. 이놈들보다 더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놈들이 없다우. 내가 그놈들을 잡고 싶으네, 큰 바가지가 없는 게 한스럽구려.”

마치 이런 벌레가 참으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 박지원, 「민옹전(閔翁傳)」 -

* 해서 : 황해도

* 황충(蝗蟲) : 메뚜기과에 속하는 벌레. 농사에 해를 끼침

* 명(螟), 모(螽) : 해충의 일종

32. 다음은 위 글의 일화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벽에 글을 쓴 일화	민 영감 : 벽에 글을 씀	고인들을 닮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드러냄①
	아내 : 왜 까마귀를 그리지 않는지 물음	벼슬을 하지 않고 집에서 글만 읽고 쓰는 남편을 놀림②
악공의 뺨을 때린 일화	나 : 민 영감을 초대함	민 영감의 이야기로 움직인 마음을 달래보려고 함③
	악공 : 성난 얼굴로 음악을 연주함	민 영감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냄④
	민 영감 : 통소 부는 자의 뺨을 때림	남의 즐거움을 생각하지 않는 악공들을 질책함⑤

33. <보기>는 작가가 작품 뒤에 덧붙인 글이다. ㉠과 <보기>에 주 목하여 작품을 쓴 작가의 의도를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아아, 민 영감이시여
괴상하고도 기이하고 놀랍고 감쪽스럽고
기쁘고 노엽고 또한 알밋더군요
저 바람벽 위의 까마귀는 끝까지 새매로 변하지 못했다고
영감은 뜻을 지닌 선비건만 마침내 늙어 죽도록 쓰이지 못
했소그려
내 이제 이 전(傳)을 짓노니 아아 그는 오히려 죽지 않았구려

- ① 혼자 남게 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한 거야.
② 민 영감이 세상에 쓰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였을 거야.
③ 민 영감의 재미있는 일화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야.
④ 부귀영화를 탐하지 않는 민 영감의 청렴함을 칭송하고 싶었
을 거야.
⑤ 세상의 부조리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민 영감의 뜻을 기리고
싶어서야.

34. 위 글을 바탕으로 민 영감의 묘비명을 적고자 한다. 가장 적
절한 것은?

- ① 유머와 해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 이곳에 잠들다.
② 늘 깨어있던 사람, 새롭게 생각하는 사람, 이곳에 잠들다.
③ 세상의 슬픔을, 세상의 아픔을 노래한 사람, 이곳에 잠들다.
④ 따뜻한 인간애로 백성의 소망을 대변한 사람, 이곳에 잠들다.
⑤ 득도하고자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이곳에 잠들다.

35. [A]와 <보기>의 주제 의식이 유사하다고 할 때, 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말하는 뜻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듯
“느릅나무 왜나무 묶어 구멍 뚫은데
어찌하여 그 곳에 깃들지 않니?”
제비 다시 지저귀며
사람에게 말하는 듯
“느릅나무 구멍은 황새가 쪼고
왜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뒹진다오.”

- 정약용, 「고시(古詩) 8」 -

- ① [A]와 <보기> 모두 대화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② [A]와 <보기> 모두 문제가 되는 상황을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A]의 [황충]과 의미가 유사한 것은 <보기>의 ‘황새’이다.
④ [A]의 ‘종로 네거리’에 한길 가득히 오가는 것들은 <보기>의
‘제비’와 그 처지가 유사하다.
⑤ [A]의 ‘농사를 해치고 곡식을 짓밟는’ 행위는 <보기>의 ‘왜나
무 구멍을 뚫는’ 행위에 대응한다.

-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한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때, 이
를 중의적 표현이라 하며 의미가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는 문
장을 중의문(重義文)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중의문은 화자가 제
시한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지냄으로써 청자가 화자
의 의도와 뜻을 이해하는 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국어에서 중의문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는 단어의 중의성, 둘째는 문장의 구조 차이로 인한 통사적 중의
성, 셋째는 부정 표현으로 인한 문장의 중의성, 마지막으로는 상
황에 따른 중의성을 들 수 있다. 이제 이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자.

(ㄱ) 그녀는 손이 크다.

└(ㄴ)-1 철수는 영수와 순이를 좋아한다.

[A] (ㄴ)-2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ㄷ) 나는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ㄹ) 그는 구두를 신고 있다.

(ㄱ)은 ‘손’이라는 단어의 중의성 때문에 문장이 중의성을 지니
게 된 것이다. 신체의 일부인 ‘손[手]이 크다’를 뜻할 수도 있고,
‘쌈씨가 크다’라는 ㉠관용적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단어가 중의성을 가지는 것은 그 단어 자체의 문제라기보
다는 해당 단어가 문장에서 사용되었을 때 해석되는 의미 차이
라고 말할 수 있다.

(ㄴ)은 문장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중의성을 보인 것이다.
(ㄴ)-1은 순이를 좋아하는 주체가 철수와 영수 두 사람임을 뜻
할 수도 있고, 철수 혼자서 영수와 순이 두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ㄴ)-2는 그녀가 아름다운 수도, 그녀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수도 있다. 심층적으로 보면 두 개의 서로 다
른 문장인데, 표면적으로만 한 개의 문장으로 나타난 것이다.

(ㄷ)은 부정 표현이 사용되어 중의성이 나타난 예이다. ‘않았
다’라는 부정어가 부정하는 것은 ‘나, 어제, 공원, 그녀, 만나다’
각각의 단어에 모두 해당한다. 물론 화자는 어느 특정한 하나의
단어를 부정한 것이겠지만 청자 입장에서는 무엇을 부정한 것인
지 확인할 수 없다.

(ㄹ)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두를 신고
있는 중’일 수도 있고, ‘구두를 신은 채로 서 있다’일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문장의 구조적 차이에 의한 것도 아니고, 단어 의미의
중의성 문제도 아니다. 상황에 따른 중의성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
다. 물론 정확한 의미의 파악은 상황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의문은 화자가 제시한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의 의미를 지냄으로써 청자가 해석하는 데 곤란
을 느끼는 복합적 의미 관계를 말한다. 중의문은 확실히 의사소
통에 크나큰 장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중의성을 점검하
는 일차적인 목표는 그러한 장애를 해소하려는 데 두어야 한다.

36. 위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 ② 부분적인 현상에서 유추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을 일정 기준에 의해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 ④ 전문가의 견해를 끌어들여 논지를 보강하고 있다.
- 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37. [A]의 중의성을 해소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조건	중의성 해소
①	(ㄴ)-1	주체가 '철수'일 경우	철수는 영수와 순이 모두를 좋아한다.
②	(ㄴ)-1	주체가 '두 사람'일 경우	철수는, 영수와 순이를 좋아한다.
③	(ㄴ)-2	'그녀'가 아름다울 경우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④	(ㄴ)-2	'목소리'가 아름다울 경우	그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다.
⑤	(ㄷ)	'공원'을 부정할 경우	나는 어제 공원에서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학습하였다.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그는 갖고 싶던 시계를 손에 넣었다.
(→ 소유하다)
- 문이 고장나서 손을 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 수리하다)

- ① 너는 참 입이 무겁구나. (→ 과묵하다)
- ② 어쩔 그렇게 시치미를 떼니. (→ 알맙다)
- ③ 참, 낮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 떳떳하다)
- ④ 그 일은 이미 엮여진 물이야. (→ 소용없다)
- ⑤ 이 골목길은 나에게 발에 익은 곳이야. (→ 익숙하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나 투표에 대한 연구를 정치학의 분야로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선거나 투표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의 주요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경제학에서는 공정하면서도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 방법이 무엇인지를 수학적 논리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A] 현행 ㉠다수결 제도는 두 명의 후보만을 놓고 선거를 하는 경우엔 완벽하게 민의를 반영하는 이상적인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하지만 후보의 숫자가 셋 또는 그 이상이 되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갑, 을, 병이라는 세 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왔다고 하자. 갑은 국민의 34%에게는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66%의 국민들은 갑을 싫어한다. 하지만 세 후보를 놓고 다수결로 투표를 해보면 갑, 을, 병이 각각 34%, 33%, 33%를 획득하여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갑이 선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보아도 한 측은 단일 후보가 나온 반면 다른 측은 두 후보가 나와서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사례가 있다. 그럼 세 명 이상의 후보를 놓고 투표할 때 민의를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없을까?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비교투표 제도가 있다.

[B] 조합비교투표 제도는 각 투표자가 단 한 명의 이름만 투표지에 기입하는 것이 아니고, 갑과 을 중에서 자신이 누구를 선호하며, 을과 병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고, 갑과 병 중에서 누구를 선호하는지를 적는다. 이렇게 후보들을 둘씩 붙여서 누가 이기는지 비교하여 1 대 1 대결에서 가장 많이 이긴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법이다. 실제 투표 방법도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각 후보의 이름 옆에 자신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등수를 적어 넣으면 컴퓨터가 금방 둘씩 짝을 지어서 계산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점수투표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각 유권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에게 3점을 주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2점, 세 번째로 좋아하는 후보에게 1점을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얻은 각 후보의 점수를 합한 후 가장 높은 점수의 합을 얻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방법으로, 이는 현행 다수결 제도보다는 뛰어난 투표 방식이다.

최근 국내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결선투표 제도는 1차 투표를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1, 2위 득표자의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프랑스, 러시아 등의 선거에서 사용되는데, 현행 다수결 제도보다는 우수한 면이 있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투표 방법보다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투표가 두 번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용도 많이 든다.

39. 위 글의 글쓴이가 제기한 핵심적인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투표의 다양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② 결선투표 제도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가?
- ③ 다수결 제도는 과연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 ④ 국민 대다수가 싫어하는 후보가 당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선거에서 수학적 논리를 사용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40. <보기>의 상황에 [A]와 [B]의 방법을 적용했을 때, 각각 당선된 사람은?

— <보 기> —

민수네 반 학생 40명이 반장 선거를 하였다. 학급 학생 모두에게 투표 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세 명의 반장 후보 순이, 철수, 영희를 좋아하는 순서대로 적게 하였다. 투표 용지를 모아 개표하니 아래와 같았다.

투표 용지	투표 용지	투표 용지
1위 순이	1위 철수	1위 영희
2위 철수	2위 영희	2위 철수
3위 영희	3위 순이	3위 순이
총 17표	총 13표	총 10표

- ① 순이, 철수 ② 순이, 영희 ③ 영희, 철수
- ④ 영희, 순이 ⑤ 철수, 영희

41.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ㄱ. 후보가 셋 이상일 경우, ㉠에 비해 ㉡가 더 합리적이다.
 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가 ㉣보다 합리적이다.
 ㄷ. ㉢가 ㉣보다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다.
 ㄹ. 후보자가 두 명일 경우, ㉣가 가장 이상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2. <보기>는 ㉠의 단어 형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 <보 기> —

자동차인 ‘당선되다’에 ‘-시키다’가 결합됨으로써 목적어를 가진 타동사가 되며, 사동의 의미를 더한다.

- ① 교육하다 - 교육시키다 ② 반영되다 - 반영시키다
- ③ 결혼하다 - 결혼시키다 ④ 축소되다 - 축소시키다
- ⑤ 굴복하다 - 굴복시키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략 줄거리] 양희기는 폐 전문 의사이다. 어느 날 그는 연초 공장 포장공으로 일한다는 인옥으로부터 폐 수술을 해 줄 것을 요청 받는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 한다며 수술을 간청한다. 그러나 희기는 그녀가 종환자여서 수술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돌려보낸다.

금숙 : 아까 그 환자에 대해서 너무 냉담하신 것 같았어요……. 가엾잖아요?

희기 : 가엾은 건 나 자신일지도 모르지…….

금숙 :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환자에게도 수술을 거절해 보신 일도 없었거니와 실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완고하게 거절하셨어요?

희기 : (어둡고 침울한 표정으로 변하며) 내가 냉정했을까?

금숙 : 그 환자는 선생님을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희기 : (깊은 생각에 잠기며) 세상은 참 묘한 거야……. 사람들은 ‘의(醫)는 인술(仁術)’이니 뭐니 하여 의사를 무슨 절대적인 존재처럼 신성시하지만, 나 자신은 조금치도 그런 실감이 안 나거든……. 여자전, 남자전, 미인이전, 늙은이전 닥치는 대로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떼어 내어 썩은 폐 조각을 잘라 내는 하나의 노동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하니 말야…….

금숙 : 그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을 건져 내지 않아요?

희기 :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목적을 의식하면서 수술을 한 적은 없었어! 5년 전에 미국에 건너가서 폐외과를 전공할 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못 해 본 수술을 해 본다는 호기심과 이걸 배워 가지고 가면 내 존재가 뚜렷해진다는功名심은 있었지만, 인간을 구하느니 하는 도의심 따위는 느껴 보지도 못했거든!

(중략)

희기 : (미심쩍게) 내가 알기엔 부인께서는 가족을 위해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사코 고집하는 것을…….

상현 : 아닙니다. 그건…….

희기 : (조용하나 위엄 있게) 그렇지만, 내버려 두면 부인께서 어떻게 된다는 건 아시고 계시죠?

상현 : (냉혹하게) 별수 없죠! 죽고 사는 건 인력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희기 : (㉠) 아니, 그럼 부인이 죽어도 괜찮단 말이요?

상현 :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대로 두는 게요. 그 돈이 있으면 나와 어린것들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희기 : (㉡) 그건 너무 심하지 않소?

상현 : (반항적으로) 심한 건 내 아내죠.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수술을 합니까? 그것도 공으로 한다면 또 모르지만, 돈 쓰고 저 죽고 하면, 남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선생님! 그러니 나는…….

희기 : (외치며) 그건 살인이나 다름없소…….

(이 말이 떨어지자 금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희기를 쳐다본다.)

상현 : 뭐라고요?

희기 : (강하게) 아내가 죽어 가도 내버려두는 법이 어디 있던 말이요?

상현 : (처음에 지냈던 겸손과 비굴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로)

참견 마세요! 내 처를 내가 죽이건 살리건 무슨 걱정이요! 나 살고 남도 있지! (불쑥 일어서서 손가방을 쥐며) 아무튼 실례했습니다! (하며 문을 탁 닫고 나가 버린다.)
(회기는 감전된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고 금숙은 회기를 주시 하고만 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회기 :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며) 미스 정!

금숙 : 예?

회기 : 아까 그 환자의 주소 알지!

금숙 : 예, 접수부를 보면…….

회기 : 좋아! 그럼 속달 우편으로 보내요.

금숙 : 예? (하며 가까이 온다.)

회기 : 수술을 받고 싶으면 편지 받는 즉시 찾아오라고!

[A] 금숙 : (㉠) 아니, 그렇지만…….

회기 : (속삭이듯) 자신은 있어! 그 대신 수혈용 혈액을 충분히 준비할 것을 잊지 말아! 알겠어?

금숙 : (㉡) 선생님, 웬일이세요?

회기 : 응? (가볍게 웃으며) 이번 환자는 꼭 살려 보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군!

금숙 : 왜요?

회기 : (㉢) 그 친구에게 살해당할 바엔 내가 말아서 살리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 같아!

금숙 : (흠뻑 쳐다보며) 기계가 노하셨네요…….

회기 : 잔소리 말고, 편지나 어서 써!

금숙 : 예! (하며 제자리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 차범석, 「성난 기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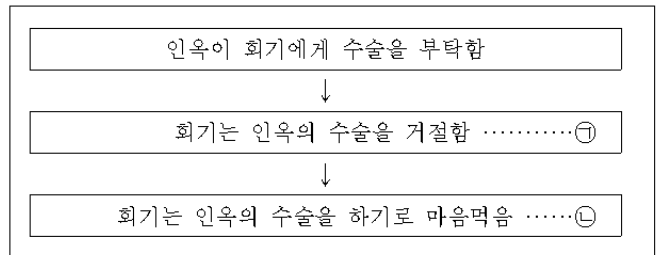
43.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금숙은 의사로서의 회기를 신뢰하고 있다.
- ② 금숙은 인옥이 수술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좋아하고 있다.
- ③ 상현은 수술 결과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반대한다.
- ④ 회기는 인옥이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인옥은 가족들을 위해 자기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44. ㉠~㉢에 어울리는 어조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몽글 불쾌감이 솟으며 ② ㉡ : 분노를 터뜨리며
- ③ ㉢ : 덩덤한 표정으로 ④ ㉣ : 빙그레 웃으며
- ⑤ ㉤ : 분노를 띠며

45. 위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 ㉡의 계기로 적절한 것은?



	㉠	㉡
①	의료 행위에 대한 회의감	환자를 살려보고 싶다는 의욕
②	상현의 반대로 인한 부담감	의사로서의 도의적 책임 발견
③	불확실한 수술 결과에 대한 우려	상현의 비인간적 처사에 대한 분노
④	수술비를 받지 못하리라는 걱정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인간적 연민
⑤	불투명한 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 회피	금숙으로 인한 잠재된 인간성의 회복

46. [A]의 ‘회기’와 <보기>의 ‘이민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형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되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췌맹그런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환자, 그는 간호원의 부축으로 겨우 진찰을 받았다.

청진기의 상아 꼭지를 환자의 가슴에서 등으로 옮겨 두 줄기의 고무줄에서 감득되는 숨소리를 감별하면서도, 이민국 박사의 머릿속은 최후 판정의 분기점을 방황하고 있었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몸골이나 엷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켜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몇몇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皇國臣民)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전광용, 「꺼폐단 리」 -

- ① ‘회기’는 ‘이민국’과 달리 환자보다 사회적 체면을 중시한다.
- ② ‘이민국’은 ‘회기’와 달리 환자보다는 자기 일신(一身)을 먼저 생각한다.
- ③ 두 인물 모두 의료 행위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 ④ 두 인물 모두 환자의 생사 여부 때문에 수술 문제를 놓고 갈등한다.
- ⑤ 두 인물 모두 환자의 경제 문제를 환자 치료의 중요한 요소로 삼는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㉓인상파 화가들은 그들의 눈에 비친 순간적인 빛의 밝기, 색채의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했다. 그들은 자연의 모든 대상이 매 순간 변화하므로, 변화하는 대상의 순간 포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전통적 화법이었던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버리고 색채와 질감을 주로 추구하였다. 그러다보니 대상이 주는 무게감과 형태의 깊이가 잘 살아나지 않을 뿐더러 화면이 점차 평면에 가깝게 되어 갔다.

인상파의 영향을 받은 ㉔폴 세잔은 빛의 반짝임을 제대로 나타낸 그들의 색채 표현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대상이 입체감을 잃어버린 것에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전통적 기법인 원근법이나 명암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또한 인상파의 기법을 따라서 화면의 이차원성에 완전히 복종해 버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되면 대상의 본질인 형태를 입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㉕세잔이 평소 탐구했던 ‘원추와 원통과 구체’ 등의 기하학적 표현이 이차원의 캔버스 위에 삼각형과 사각형과 원으로 환원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사실 그것은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 화가들이 실제로 걸어간 길이었다. 회화의 본질은 형태에 있다고 믿었던 ㉖입체파 화가들은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이해한 세잔의 화법에 영향을 받았으나, 세잔과는 달리 대상을 해체·조합하여 표현하는 새로운 길로 나아갔다.

그렇다면 세잔은 인상파의 평면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일차적으로 색채 표현에 있다. 그는 색을 칠해감에 따라 형태감을 살리고자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상파가 했던 색채 분할처럼 형태를 무시하고 색의 터치를 병렬시키는 방법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세잔의 대표적 정물화 ㉗「사과와 오렌지」를 보자. 이 작품에서 세잔은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재현하고자 했다. 가운데 접시에 쌓여 있는 과일 중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을 보자. 짙은 빨강, 주황, 노랑을 미묘하게 섞어 칠함으로써 음영이 아닌 색채로 형태를 드러냈다.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개개의 과일들이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것처럼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대상의 위치 관계도 어딘지 미묘하게 어긋나 있다. 과일들이 담겨 있는 흰 대접을 보면, 옆에서 그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위 부분은 위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바닥까지 드러나 보인다. 세잔은 대상의 형태를 잘 구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위에서, 때로는 옆에서 시점을 옮겨가며 본 것들을 하나로 종합하는 방법을 구사하였다. 이것이 세잔이 평면성을 극복하려 했던 두 번째 비밀인 것이다.

오늘날 세잔이 현대 회화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이유는 그가 구축한 새로운 회화의 원리가 기존의 회화들이 지니고 있던 대상 재현의 한계를 넘어, 회화를 작가적 주관성에 근거한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 있으며, 회화가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추상으로 진행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47. ㉓~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① ㉓와 ㉔는 정물화를 중시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② ㉓와 ㉔는 색의 터치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③ ㉓와 ㉕는 명암법과 원근법을 중시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④ ㉔와 ㉕는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㉔와 ㉕는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인식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48. ㉕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본질적 형태를 나타내려고
- ② 형태와 공간을 완전히 변형시키려고
- ③ 형태와 색채의 미묘한 관계를 표현하려고
- ④ 형태와 색채 속에 인간의 내면을 담으려고
- ⑤ 대상을 기하학적으로 해체한 후 다시 조합하려고

49. ㉗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민화에는 상하좌우를 비롯해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형상들이 하나의 화면 속에 뒤섞여 있다. 까치 호랑이 그림 ‘작호도’에서는 호랑이의 얼굴은 앞에서 본 모습을 그리면서 몸은 옆에서 본 모습을 그리고 있다. 민화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물의 크기가 그리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정해지는 점, 강렬하고 감각적인 원색이 거리낌 없이 사용되는 점, 사물들의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무시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 ① 대상을 상하좌우 대칭형 구도로 그렸다.
- ② 대상의 입체감이나 공간감을 무시하였다.
- ③ 대상의 형태를 살리기 위해 색채를 분할하였다.
- ④ 대상을 다시점 기법을 사용해 왜곡되게 그렸다.
- ⑤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원색을 사용하였다.

50. 위 글에서 <보기>에 추가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원근법의 ‘-법(法)’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방법’ 또는 ‘규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한자어의 경우 이렇게 일부 명사의 뒤에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붙어 단어가 만들어지는 예가 많다.

- | | |
|------------------|------------------|
| ① ‘전통적’의 ‘-적(的)’ | ② ‘이차원’의 ‘-원(元)’ |
| ③ ‘사각형’의 ‘-형(形)’ | ④ ‘기하학’의 ‘-학(學)’ |
| ⑤ ‘평면성’의 ‘-성(性)’ |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